



새로운 조경수 86

은행나무



김 사 일

전 임업연구원 산림환경부장

1. 종류와 생육특성

은행나무과(*Ginkgoaceae*) 은행나무속(*Ginkgo*)에는 은행나무 단 한 종밖에 없고 변종으로 엽실은행, 피랏밧은행 등 2종이 알려져 있으며, 열매의 굵기에 따라 여러 가지 재배 품종이 알려지고 있다. 은행나무는 활엽수와 같이 넓으면서도 침엽수로 취급되고 있는 독특한 나무이며 원래 중국이 원산지이나 우리나라에 들어 온지가 1,000년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은행나무는 중생대(中生代)에 대단히 번성하였던 나무로 그 생존역사가 오

래되어 살아있는 화석(化石)이라고 불리고 있다. 내한력, 내공해력, 내화력이 강한 수종이라 우리나라 전 지역에 걸쳐 식재가 가능하고 반면 내음력과 내염력이 약하기 때문에 해풍이 닿는 해변이나 음지에 식재는 피하는 것이 좋다. 생육적지는 수목이 없는 개방지(開放地)로서 표고 500m 이하의 낮은 지역 중에 토심이 깊고 비옥적운한 배수가 잘 되는 사질양토다.



▲ 단풍이 들기 시작한 은행나무 가로수



〈표 1〉 은행나무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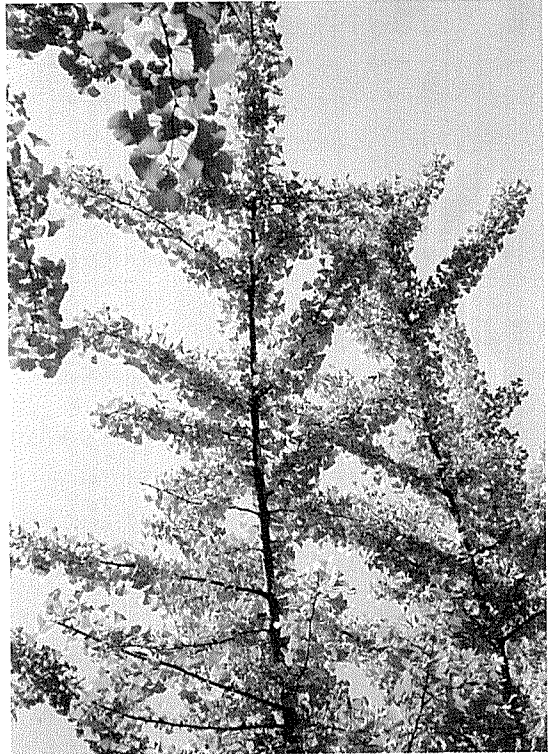
국 명	학 명	일 본 명	영 명
은행나무	<i>Ginkgo biloba</i> L.	イチョウ	Maidenhair Tree (Ginkgo)
엽실은행나무	<i>Ginkgo biloba</i> L. var. <i>epiphyllum</i>	オハツキイチョウ	-
피라밋은행나무	<i>Ginkgo biloba</i> L. var. <i>fastigiata</i>	-	-

〈표 2〉 수종별 생육특성

수 종 명	가지와 잎	꽃과 열매	분 포 지 역	생 육 입 지
은행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고 60m, 직경 4m이상 자라는 낙엽침엽수 교목 • 줄기는 곧게 자라고 가지는 옆으로 퍼지며 장수형 나무임. • 줄기에 때로 종유(鍾乳)라고 하는 기근(氣根)같은 것이 붙어짐. • 긴 가지에 잎은 호생하지만 짧은 가지에 잎은 총생한 것 같아 보임. • 잎은 부채모양을 하고 잎 가장자리가 가끔 갈라지기도 함. • 가을에 샛노랗게 단풍이 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웅이주로 꽃은 5월에 잎과 같이 피. • 암나무의 암꽃은 길이 2cm 정도 되는 화경에 두 개의 배주(胚珠)가 달림. • 두개의 배주 중 한개는 퇴화하고 남은 한개만 자라서 10월에 노랗게 익음. • 보통 열매의 과육에 해당하는 부분을 은행에서는 외종(外鐘衣)라고 함. • 내종의 속에 우리가 은행이라고 하는 종자가 들어있음 • 종자는 백색으로 살구와 비슷하다 하여 은행(銀杏)이라고도 함. • 1 / 당 종자입수 410개, 1kg당은 650개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원산 • 한국, 일본에도 유입 • 전국에 걸쳐 표고 500m이하의 낮은 지역에 분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풍이 잘 닿지 않는 개방지로서 토심이 깊고 비옥 적윤한 토양에서 잘 자람.
엽실은행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지와 잎의 특성은 은행나무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잎에 은행이 달리는 것 외는 꽃과 열매의 특성은 은행나무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피라밋 은행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줄기의 밑 부분의 굵기와 윗부분의 굵기가 너무 커서 피라밋 모양으로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꽃과 열매는 은행나무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은행나무 정자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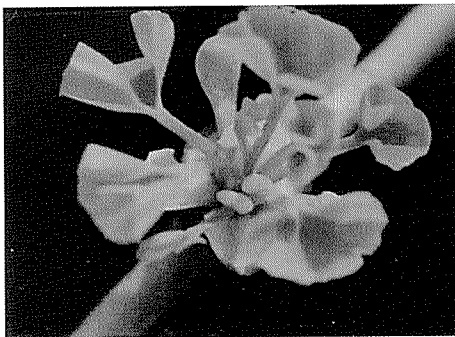
▲ 은행나무 결실과정

2. 조경수로서의 활용가치

은행나무는 거목으로 자라 가지가 무성하여 그늘이 짙고 수명이 길 뿐 아니라 병충해에의 피해도 별로 없기 때문에 옛날부터 마을 어귀, 향교, 궁궐, 사찰, 누각 등에 정자목으로 식재하여 왔으며, 지금도 수백 년이 넘은 거목들이 우리나라

전 지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은행나무는 우리 생활환경속에 파고든지 오래된 나무며 현재는 가로수로 많이 식재하고 있다. 가을에 셋노랑게 물든 단풍은 사람의 눈을 현혹시키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찬란하고 노란 은행잎이 떨어져 소복히 쌓인 도심의 가로를 산책한다는 것은 도심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정경으로 선뜻

발을 내딛기가 민망할 정도로 아름답다. 그리고 지금까지 은행나무 가로수는 암나무, 숫나무 구별 없이 식재하여 왔



▲ 암꽃



▲ 숫꽃

으나 가급적 숫나무만 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암나무는 가을에 열매가 떨어져서 심한 악취를 풍기고 땅바닥에 눌러 붙어 보기 흉하며 환경미화에도 좋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로수용 은행나무는 숫나무만 심고 식, 약용의 은행나무 열매의 수확을 목적으로 한 때는 암나무만 심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번식 및 양묘방법

은행나무의 번식은 보통 종자파종에 의한 실생묘 양성에 의하지만 삼목 및 점목으로도 번식한다. 실생묘 양성은 가을(10월경)에 노랗게 익은 열매들을 장대로 털어 모아서 2~3일간 물에 담가 두었다 마대에 넣고 발로 밟아 뭉개어 외종피를 분리시킨 후 물로 씻어 제거하고 건져서 물을 뺀 후 곧바로 습한 모래와 섞어서 저온저장 또는



▲ 셋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단풍

노천매장을 하여 두었다가 이듬해 봄(4월경)에 파종한다.

그리고 가을에 종자를 채취하자마자 바로 파종하여도 무방하고 이때는 외종피(과육)를 벗기지 않고 그대로 파종하여도 된다. 봄 파종적기는 3월 하순~4월상순, 가을 파종적기는 10월 상순~하순, m^2 당 파종량은 250개(400g 또는 0.6l), 파종방법은 조파, 발아율 80%, m^2 당 이식본수는 20본, m^2 당 득묘본수는 150본, 평균묘고 17cm, m^2 당 이식본수는 20본 정도로 하고 직극성이기 때문에 단근을 하여 이식하는 것이 좋다.

삼목 및 점목번식은 식재목적에 따라 숫나무, 암나무의 묘목을 따로따로 생산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한다. 삼목은 봄에 작년 가지를 사용하여 삼목을 하여도 가능하지만 발근율이 낮기 때문에 당년 가지로 하기 삼목을 주로 한다. 당년에 자란 가지 중에서 생육이 충실한 가지를 골라서 10~15cm 길이로 잘라서 윗부분에 잎 3~5장만 남기고 전부 제거해주고 아래 절단부는 예리한 칼로 단번에 비스듬하게 잘라서 삼수를 조절한다. 삼목의 적기는 6월 중순~7월 하순, 삼입깊이는 삼수길이의 2/3정도, 상토(床土)는 비료분이 없는 사질양토, m^2 당 삼목본수는 200본, 특히 삼목 후 발근될 때까지는 비닐을 씌우고 해가림을 하여 토양습도와 공중습도를 잘 관리하여 건조되지 않도록 하고, 토양이 너무 과습하면 삼수의 아래절단부가 썩게 되므로 세심한 관찰을 요한다. 점목은 초봄에 동아(冬芽)가 튀기 전에 작년가지 중에서 충실한 것만 골라 채취하여 저장고 등 냉암소에 건조하지 않게 저장하여 두었다 4월 중순경에 은행나무 실생묘에 절접을 실시한다.

※ 은행나무는 15년생 이상이 되어야 결실하게 되므로 그전에는 숫나무, 암나무의 구별이 불가능하여 실생묘로서는 숫나무, 암나무의 계획생산이 어렵다. 